



여수시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사회취약계층 대상 지원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지원

여수시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료(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이며,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수 애양병원(협약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 659-4315)에 신청할 수 있고, 지원자로 선정되면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이루어진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일상 생활에 고통을 겪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9년에 28명의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여수=김도현 기자



장애·비장애인 학생 함께

줄기는 통합체육 수업안내서

문체부, 10년 만에 전면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10년 만에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를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처음 마련한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는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체육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을 높여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 ‘안내서가 장애학생 위주의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구성, 비장애인 학생들의 참여율을 낮추고 지도방법을 나열식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성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 장애·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해외 최신사례 분석 및 교육 현장과의 접목 △ 현장(학교) 중심의 통합체육 이론과 지도 교안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개정 안내서를 펴냈다.

이번 개정 안내서는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015년 확정 발표한 교육 과정에 맞춘 학습목표와 평가계획(안)을 포함한 지도 교안을 제시, 교사들이 개별화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통합체육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20년에 개정 안내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통합체육 교사 직무연수, 통합체육 교실 운영(2020년 85개교), 통합체육 우수 교사 해외연수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개정 안내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198개소)와 정다운학교(2019년 74개교), 2019년 통합체육 연구학교(4개교) 등에 직접 인쇄해 배포한다.

동신대 학생들, 동곡동 어르신에 이·미용봉사

뷰티미용학과, 어르신 및 장애인 33명에 서비스 실시

광주 광산구 동곡동은 11일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학과장 임순녀) 학생들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33명에게 이·미용과 돌봄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미용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은, 미용실이 없어 외지에 있는 자식 이랑 친척들이 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였는데, 순녀 같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머리를 정성들여 잘라줘

서 감동을 받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함을 전달했다.

임순녀 동신대 교수는 “휴일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이·미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국악으로 문화 나누는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신청 안내

2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 실시…오는 31일까지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국악을 통해 문화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을 2월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주에 총 6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연 대상은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안 및 시설 단체로 국립남도국악원 소재지 기준 근거리 시설,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국악공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곳, 법안 또는 시설의 재정여건이 미약한 곳이다.

신청방법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우편접수는 1월 31일 도착분에 한함).

선정결과 공고는 2월 7일에 누리집 또는 개별통보 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이 되며 공연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으로 공연장 여건과 관람객에 맞춰 다양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전화 061-540-403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뉴스1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소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